

“고1 학력평가, 수학 33%·영어 74% 교육과정 벗어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 3월 학평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수학, 일부 ‘킬러문항’ 형태 보여 영어, 교과서 수준과 난도 격차 커

2026학년도 고교 1학년이 치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문항 3개 중 1개, 영어 독해 문항 10개 중 7개가 시험 범위인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30문항 중 9문항(33.3%), 영어 독해 28문항 중 20문항(71.4%)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 전 문항과 영어 독해 전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3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학은 중·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22인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교차 분석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6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영어는 ATOS 지수를 활용해 독해 지문의 난도를 측정했다. ATOS 지수란 독해 지문의 문장 구조와 어휘 수준, 분량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 난도를 산출하고 이를 미국 학년 기준으로 제시하는 지표다.

수학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미준수, 평가 방법 위반, 고등과정 선행학습이 유리한 문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개념을 활용

하면서도 복합적인 추론 과정을 요구해 사실상 선행학습 여부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영어 영역은 교과서 수준의 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중3 영어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는 미국 학년 기준 초6~중1수준(AR 6.73~7.17)인 반면, 학력평가에서는 최고 난도가 미국 고3수준(AR 12.63)으로 분석됐다. 전체 독해 문항

의 71.4%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난도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표준점수를 살펴봐도, 최고점이 국어 146점, 수학 15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학은 역대 수능 최고치였던 2020학년도 149점보다 7점 높은 수준으로, 평균 점수도 43.31점에 그치고 표준편차가 20점 이상으로 벌어져 상·하위권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평균 56.80점, 표준편차 19.10점으로 상위권도 70점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1등급 비율은 4.38%에 그쳤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6~10%보다 낮은 수치다.

사걱세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며 “당시 평가원이 수능 영어 1

등급 적정 비율을 6~10% 수준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월 학평의 영어 1등급 비율 4.38% 역시 난도 조절 실패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이 같은 결과가 학교 교육만으로 시험 대비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력평가를 출제하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을 준수한 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과 함께 학력평가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력평가 출제가 반복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학력평가 역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비 지원 확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지원율 30%→40%… 최대 7000만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모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6000호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000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

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마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 중 보증

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SH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 공급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 승인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주거와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3만 5722㎡ 부지에 아파트 7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1㎡부터 59㎡까지 다양한 평형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거점사회복지시설’ 도입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기능에 치중되면서 입주민의 사회적 단절과 복지 사각

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 통합, 단지 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 중 100세대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된다. 해당 주택에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고령층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된다.

입주민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공간도 확충된다. 단지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 카페라운지 등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한양대 국제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된다. 면접은 5월 30일, 합격자 발표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모집은 동아시아학과, 지속가능경제학과, 글로벌전략·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속가능경제학과는 기후위기 대응, 경제사회 불평등, 사회연대경제, ESG 실천, 국제개발협력, 기업의 ESG 대응과 금융·정책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글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경

로벌 전환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공공기관·금융권·기업·비영리·국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적합하다.

글로벌전략·정보학과는 전략적 리더십, 정보분석, 시장정보, 보안 및 위기관리 등 4개 분야의 실무적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와 정보가 의사결정의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에 국제경영, 경쟁정보, 디지털비즈니스, 시장정보미디어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공공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을 높인다.

동아시아학과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국제관계를 탐구한다. 동북아 트랙과 러시아 트랙을 통해 지역 전문성과 국제정세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8일(화)

음력 : 3월 12일

수도권 날씨

11 ~ 18℃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41 | 해질 / 19: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란, 美에 ‘우선 호르무즈 개방·중전 합인→ 이후 핵협상’ 제안”

▲ 구윤철, OECD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에 “정책 대응으로 반등 가능”



▲ 英 찰스3세, 독립 250주년 축하 방미…트럼프 만찬·의회 연설

▲ 대만 외교,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중간섭 피해 유럽 경유

/사진 뉴스스

▲ 中 1~3월 공업이익 365조원·15.5% ↑ …“컴퓨터·통신·전자 제조 견인”

▲ 일본, 미국산 원유 91만 배럴 도착… 내달 전년 대비 수입 4배 확대 계획